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인상

선정기준액 상향...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2026년 1월부터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으로 오른다. 이는 전년(월 34만2,510원)보다 7,190원 인상된 금액이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5만9,52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된다. 2026년부터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년 기준보다 각각 19만 원, 30만4천 원 오른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재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기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

야 한다. 2026년 신규 신청 대상은 1961년생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월부터 연금을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보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

해 신청을 돕는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변경된 제도를 적극 안내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가능하지만,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오상근 기자



㈜열한시오십분이 지난달 29일 베트남 해외통상거점센터에서 현지 유통·외식 전문 기업 SS리테일(SS Retail)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전북 외식 브랜드, 해외 진출 성과

메르밀진미집, 베트남 현지 기업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전북 지역 외식 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열한시오십분이 지난달 29일 베트남 해외통상거점센터에서 현지 유통·외식 전문 기업 SS리테일(SS Retail)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경진원이 지난해부터 베트남 해외통상거점센터에 전담 인력을 상주시켜 현지 기업 상담과 협의 대응 체계를 운영해 온

결과로, 국내 외식·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이 실제 수출 구조로 연결된 사례로 평가된다. 경진원은 그동안 베트남 해외통상거점센터를 통해 현지 시장 정보 제공, 파트너사 검증, 계약 협의 지원 등을 수행하며 현장 상황에 맞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해 왔다. 계약에 따라 ㈜열한시오십분은 2026년 1분기 내 베트남 하노이에 '메르밀진미집' 1호점을 개점하고, 이후 나트랑과 호찌민 등 주요 도시로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안호영 의원 완주·전주 통합 찬성 환영... 전북 성장 동력 기대”

전주상공회의소, “행정 통합 넘어 광역 경제권 도약 계기 될 것”

전주상공회의소가 안호영 국회의원의 완주·전주 통합 찬성 입장 표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통합이 전북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은 2일 상공인 성명을 통해 “안호영 의원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닦아놓았지만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표한다”고 말했다. 전주상의는 완주·전주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이미 하나의 산업·경제·생활권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 현실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이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선제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이 기업 활동 효율성 제고와 투자 유치 기반 확충, 광역 인프라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전반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주상의는 그동안 중복 행정과 지역 간 규제 차이로 인해 기업들이 겪어온 비효율 문제를 언급하며, 이번 통합 논의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전북 경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K-패스카드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정책에 맞춰 대중교통 이용 고객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전북은행 K-패스카드'를 출시하고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청년과 일반 성인은 물론 저소득층까지 폭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북은행 K-패스카드는 신용카드로 체크카드 2종으로 구성됐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국내외 겸용 1만 원, 국내 전용 8천 원이다. 카드 발급 고객은 K-패스 홈페이지에서 최초 1회 이용자 등록만 하면 이후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은행은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이벤트도 실시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해 K-패스카드를 발급한 고객이 이벤트 기간 동안 누적 1만 원 이상 이용하면, 신용카드는 연회비 전액 캐시백, 체크카드는 5천 원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소중립 분야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본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6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월 9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사업화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의 현장 적용과 시장 확산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유형은 기술 성숙도와 투자 여부에 따라 △기술사업화 △현장실증 △투자연계 등 3가지로 나뉜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 총 17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 투자와의 연계를 강화한 '투자연계형' 유형이 새롭게 도입됐다. 기술력은 갖췄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사업화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ESG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JB 든든 생계비 계좌'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고객의 최소한의 생활자금 보호를 위한 'JB 든든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 전북은행은 2일, 법령에 따라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압류가 제한되는 생계비 보호 전용 통장인 'JB 든든 생계비 계좌'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실명의 개인 고객이라면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며, 영업점은 물론 모바일뱅킹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개설 가능하다. 전북은행은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4월 30일까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는 계좌 개설 및 유지 조건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먼저 기간 내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 중

매월 100명을 추첨해 '2,026원 캐시백'을 지급한다. 또 월 누적 30만 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50명을 추첨해 CU편의점 5,000원 모바일 금액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벤트 기간 동안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에 도달한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생활지원금 50만 원(기프트카드)'도 증정한다. 단,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잔액이 해당 조건 금액을 충족한 날로부터 최소 1일 이상(다음 날 자정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전북바이오진흥원, 두바이 식품박람회 홍보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이 중동·북아프리카(MENA) 시장 공략에 나섰다.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중동 최대 식품박람회 'Gulf Food 2026'에 참가해 전북 농수산물 홍보관을 운영한 결과, 총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2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Gulf Food는 식품 전반은 물론 대체식품과 푸드테크 서비스 분야까지 아우르는 중동 대표 식품 박람회로, 올해는 129개국 5,500개 기업이 6,000개 부스로 참가하고 약 15만 명의 참가객이 방문한 대형 행사다. 바이오진흥원은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와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국내 농수산물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이 복잡해지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전북홍보관을 E2B 상담 중심으로 운영했다. 단순 전시·홍보를 넘어 바이어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가격, 유통 조



건, 인증 요건 등을 점검하며 실제 수출 연계 가능성 확인에 집중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농수산물 기업 2곳이 참가했다. 군산의 아리울 수산은 박대와 조기 제품을, 옹고집은 소스류와 장류, 떡볶이 제품 등을 선보이며 중동 및 세계 각국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과정에서는 중동 유통 채널 납품을 위한 규격과 라벨링 요구 사항, 할랄·코셔 인증 관련 문의가 이어졌으며, 샘플 테스트와 테스트 마켓 운영 제안 등 후속 협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일부 바이어와는 샘플 발송과 테스트를 통한 거래 일정 논의 등 구체적인 후속 일정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